



과테말라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될 듯

과테말라 경제는 지난 1998년 4.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 중남미 금융위기, 9.11 테러사건에 따른 관광산업 부진,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왔다. 2002년에도 농산물 국제가격 하락,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2003년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른 투자 확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경제성장률 2.0% 기록

2002년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중앙은행의 예상(3%)에 못 미치는 2.0%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물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커피와 설탕의 수출

액 감소, 미국의 소비 침체에 따른 의류 수출 감소, 그리고 케찰貨(Quetzal)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꾸준히 성장해 온 과테말라의 커피 산업¹⁾은 1998년 이후 커피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2002년에도 수출이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하였다. 세계 5위, 중남미 3위를 점유하고 있는 동국의 설탕 산업 역시 국제가격 하락, 임금 상승 등의 요인이 악재로 작용하여 2002년 9월까지의 수출도 현재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하였고, 그 동안 호조를 보여 왔던 의류 수출액도 미국의 소비 둔화, 수출단가 하락, 임금 상승 등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전반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반해, 케찰貨 강세로 인해 소비재 수입이 대

1) 전 세계 커피 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커피 산업은 2002년 한 해 동안 생산량이 평균 4% 감소하였음.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의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멕시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9	2000	2001	2002 ^f	2003 ^f
경 제 성 장 륜	3.6	3.3	2.1	2.0	2.5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4.9	5.1	7.6	8.2	5.7
경 상 수 지 / G D P	-5.6	-5.5	-6.0	-6.2	-6.2
상 품 수 지	-1,984	-2,095	-2,200	-2,900	-3,200
수 출	2,397	2,695	2,900	2,800	2,900
수 입	4,381	4,790	5,100	5,700	6,100
재 정 수 지 / G D P	-2.8	-1.8	-1.9	-2.0	-2.0
총 외 채 잔 액	4,660	4,700	4,500	4,900	5,000

자료: EIU.

폭 증가하면서 2002년 9월 말 현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3% 증가한 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수입 증가와 함께 커피, 설탕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의 22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35% 이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 거주 과테말라 노동자의 본국 송금²⁾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하고, 9.11 테러 이후 부진하였던 관광산업이 회복되면서, 2002년 과테말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6.2%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렇듯 전반적인 교역은 부진하였으나 동국의 대외신인도는 2002년 한 해 동안 상당히 개선되어, 동국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IMF와 1억 500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협약³⁾에 합의하였고, 미주개발은행과 세계은행으로부터 각각 2억 4,000만 달러⁴⁾와 1억 5,000만 달러의 차관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난 11월에 의회가 총 7억 달러의 유로본드 발행⁵⁾을 승인하여, 향후 재정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불안 요인 상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03년 과테말라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교역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기가 하반기 이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보세가공업인 마

2)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과테말라인들은 대략 1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60%는 불법체류자임. 이들로부터 유입되는 외화는 과테말라의 외화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동 협약은 과테말라 정부가 물가상승률 연 6% 이내 유지, 재정적자/GDP 1.3%,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유지, 조세수입 12% 이상 증가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국 정부가 IMF 대기성 차관 협약 이행조건 중 외환보유고를 제외한 여타 조건을 달성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2003년 4월의 차관 연장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4) 동 차관은 금융 시스템 현대화에 2억 달러, 중앙아메리카의 에너지 개선사업에 4,000만 달러, FTAA를 위한 협약이행능력 구축전략(Trade Capacity-Building Program)에 500만 달러 등 세 가지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5) 동 글로벌 본드 발행에 대해 IMF는 동 자금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경기부양책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

킬라(Maquila) 산업⁶⁾ 및 관광 산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 및 세계은행(WB)으로부터 차입한 4억 달러가 정부의 경기부양책⁷⁾과 맞물려 금융 부문 개혁, 주요 기간산업 및 인프라 구축 등 민간 부문에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9년부터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는 건설업, 운송업 등의 내수 진작으로 인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간의 FTA 협상⁸⁾이 200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연내 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류·농산물 부문에서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부적인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1982년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리오스 몬트(Rios-Montt) 現국회회장의 2003년 11월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무성에서 언급된 과테말라 집권당(FRG)내 부패 스캔들,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된 여당과 야당·재계와의 갈등 등이 향후 낙관적 경제전망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테말라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미국 경제의 회복, 미국과의 FTA 타결, 2003년의 대선 및 총선 결과, IMF와의 차관 연장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얼마나 신속히 해소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성 규】

6) 200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5% 인상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2003년 들어 케찰貨가 약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반적인 마킬라 산업의 수출 전망은 긍정적임.

7) 2002년 6월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재정과 무역수지 개선, 인플레이션 억제, 신공항 건설,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8) 지난 1월 27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제1차 실무단 협상이 개최되었고, 향후 8번의 추가적인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협상국들은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